

국내 외식산업의 산업구조적 특성 분석: '90과 '95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천희숙 · 한경수,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외식조리전공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Centering around '90 & '95 Input-Output Tables

Cheon, Hee Sook · Han, Kyung Soo. Department of Food service & Culinary Management,
The College of Tourism Science, Kyonggi university

외식산업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 외식업이 사회·경제적으로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식기회의 증대와 외식에 대한 사회적 개념의 변천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음식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었으나 산업 규모의 원리가 적용되고 외식행위 자체가 사회, 경제, 문화적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외식산업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외식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대기업의 참여가 큰 계기가 되었다. 통계청 한국통계연감에 의하면, 음식점은 1976년 97,271개에서 1999년 564,686개로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1985년 4.1조원에서 1999년 33.6조원의 규모로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는 133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외식산업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외식시장의 규모라든지 혹은 외식산업의 성장률에 관한 근거는 거의 다 추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경제를 여러 산업 부문으로 세분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상호연관관계가 규명되어 있는 '90과 '95 산업연관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외식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경제요인을 찾고, 더불어 타산업과는 다른 외식산업만의 산업적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1995년은 외식산업의 성장기로서, 이를 뒷받침했던 경제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산업연관표상의 음식업부문을 외식산업이라 정의하고 음식업부문의 생산, 수입, 부가가치 유발액과 고용 및 취업유발인원 중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90년 & '95년 수입유발액과 고용 및 취업유발인원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90년과는 달리 '95년에는 새로이 정부소비지출·민간고정자본형성·정부고정자본형성·재고증가·수출에서 수입액이 유발되어 외식산업의 최종수요항목별 수입유발계수 평균이 2.7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식산업의 수입유발이 소비지출에 많이 의존하면서 '90년과 달리 새롭게 수입액이 유발된 것으로 보아, 외식산업의 성장기였던 1995년에는 외국계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 및 단체급식업체가 국내 도입되어졌던 시기로 분석되어진다. 둘째, '90년과 '95년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비슷하였지만, 1995년 외식산업에서는 1.78배의 취업유발인원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고용유발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창업이 활성화되었다고 분석된다. 셋째, 취업유발인원이 고용유발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 외식산업의 산업구조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 본인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식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업(業)이 아닌 하나의 주요산업임이 규명되었으므로 외식산업을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계획·발전시킬 주무부서 및 경제계획의 수립이 절실함이 요구된다.